

대학은 정말 “능력주의”로 학생을 뽑을까?

미국에서 능력주의란 사회,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개인의 재능, 노력, 그리고 성실함을 통해 성공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상은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엘리트 대학들의 입학 현실에서도 적용 될까요? **《미국 능력주의의 신화(The Myth of American Meritocracy)》**에서 론 운츠(Ron Unz)는 대학 입학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동문 자녀 우대, 기부자의 영향력, 인종 선호 정책, 그리고 주관적인 평가 기준 등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합니다.

운츠는 아이비리그 대학의 입학 절차가 특정 집단에게 불공정하게 작용하여, 이들이 실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제도적 특혜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친척이 해당 대학을 졸업한 동문 자녀 지원자는 그렇지 않은 지원자보다 훨씬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액을 기부한 가정의 자녀들이 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대학 입학이 부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능력주의 이상을 왜곡하고 있다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동문 자녀 우대 정책은 20 세기 초반, 고등 교육을 받는 인구 구성이 변화하면서 등장하였습니다. 특히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1920~1930 년대에 이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유대인을 포함한 이민자 및 노동계층 출신의 학업 우수자들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학생 구성 비율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동문 자녀 우대 정책은 부와 특권이 명문 대학 입학과 연결되는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상류층 가정의 자녀들이 엘리트 교육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운츠는 유대인 학생들의 입학 비율을 분석하며 흥미로운 논점을 제기합니다. 과거에는 유대인 학생들이 차별을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아시아계 미국인보다 평균 학업 성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입학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아시아계 학생들은 뛰어난 학업 성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저평가되어 입학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합니다. 그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인종 우대 정책이 오히려 "능력"의 정의와 평가 방식에 불공정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합니다.

운츠는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의 부패성이 단순히 명백한 특혜 정책 때문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호한 "총체적 입학 심사(holistic admissions)"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대학 입학 위원회는 명확하고 일관된 평가 기준이 부족하며, 이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큼니다. 예를 들어, 리더십 잠재력, 과외 활동, 자기소개서 등의 요소는 평가 기준이 애매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학생들이 입시 컨설팅, 사교육, 과외활동 기획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집니다. 운츠는 이러한 요소들이 사실상 대학들이 원하는 인구 구성을 만들면서도 능력주의라는 겉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이비리그 대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학 랭킹을 높이려는 명문 대학들, 강력한 동문 네트워크와 기부 문화가 있는 공립대학들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동문 자녀 및 기부자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입학 과정에서 재력과 인맥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미국 전반에 퍼져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입학 과정에서 공식적인 특혜 정책 외에도 부유한 가정의 사교육 투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소득층 가정은 사설 과외, SAT/ACT 준비 프로그램, 특화된 과외 활동, 명문 고등학교 진학 등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선천적인 재능이 아닌 "환경적 이점" 덕분에 더 나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평등한 환경은 대학 입학이 표면적으로는 능력주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 경제적 계층을 재생산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운츠는 이러한 불공정한 입학 시스템이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명문 대학들이 진정한 실력자를 선발하지 않고, 기존 상류층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면, 사회적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대학이 능력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불공정한 입학 정책을 운영하면, 대중의 신뢰가 점점 무너질 가능성이 큼니다.

입학 제도를 개혁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변화를 가로막는 저항도 상당합니다. 동문 자녀 우대 정책 폐지, 입학 절차의 투명성 강화, 표준화된 시험(SAT/ACT) 점수의 중요성 강화 등의 개혁안이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기부금 감소, 동문 네트워크 약화, 특정 인종의 입학 비율 감소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대학들의 반발이 큼니다. 운츠는 SAT와 같은 객관적인 시험 점수가 현재의 불투명한 평가 방식보다 더 공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능력주의의 신화》****는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명문 대학 입학 절차의 근본적인 문제를 폭로하며, 재력과 인맥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 불투명한 입학 심사 과정,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운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력"의 정의를 다시 검토하고, 입학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등 교육이 진정한 능력주의적 기회 제공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기존 특권층의 재생산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합니다.